

예일학파의 맹장 폴 드만의 독서이론

모든 독서는 필연적으로 '誤讀'일 수밖에 없는가

金旭東

서강대 교수·영문학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해체이론'

"회의주의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으로 아무 리 그것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더라도 언제든 쉽게 다시 재발하기 마련이다"—이것은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비드 흄의 말이다. 흄의 이 말은 1960년대에 이르러 후기 구조주의의 한 형태로 대두된 '해체'비평 이론의 입장을 참으로 잘 요약하고 있다. 일종의 비평적 회의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해체이론은 우리가 이제까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온 전통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 의의를 제기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인간의 언어, 경험, 의사소통의 체계, 그리고 이런 것들에 기초하고 있는 문학을 종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해체이론의 이론적, 철학적 기틀을 마련해준 사람은 다름아닌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이다. 그는 이제까지 서구세계를 지배해온 철학의 기본적인 형이상학적 전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플라톤 이후 모든 서구철학은 '진리'나 '본질' 혹은 '존재'와 같은, 통일성의 원리로 작용하는 어느 한 '중심'에 기초해왔다. 데리다는 이런 '중심'에 대한 갈망을 가리켜 '로고스 중심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는 이런 로고스 중심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 '음성 중심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음성 중심주의란 종래의 서구철학이 그래왔듯이 문자로 씌어진 글보다는 口頭로 표현되는 말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런데 데리다는 말이 오히려 글에 포섭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말과 글 사이의 '폭력적 계급조직'을 해체시키고자 시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체이론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신비평의 '유기적 형식론' 깨뜨려

데리다의 해체이론은 1960년 중엽 대서양을 건너와 미국에서 크게 유행되었다. 그러나 모든 문화 현상이 오래 그러하듯이 이 이론은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지 않고 미국의 특수한 문화적 풍토 속에서 미국적인 형태로 굴절되고 변형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것은 예일대학의 비교문학과를 중심으로 新批評 이후 가장 중요한 비평이론으로 발전되었다. 이른바 '예일 학파' 혹은 심지어 '예일 갭'으로 알려진 해럴드 블룸, 제프리 하트만, J. 힐리스 밀러, 그리고 폴 드만 등은 가장 대표적인

미국에서 신비평 이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비평이론이

예일대학을 중심으로 한 해체이론이다.

예일학파의 실질적 리더였던 폴 드만은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논리를 적극 수용, 이를 새롭게

발전시켰다. 그는 모든 언어는

수사학적이기 때문에 문학과 비평의

경계가 무너지고 우월이 사라진다는

독특한 독서이론을 전개하였다.

미국의 해체 이론가들이다.

미국의 해체이론가들 중에서도 특히 네덜란드 태생의 이론가 폴 드만(1919~1983)의 비평이론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 해체이론은 흔히 전통적인 이론가들로부터 '무해한 학구적 유희'나 '일종의 테러집단의 무기'로 비난받아왔다. 그런데 드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해체이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이론가이다. 더우기 그의 해체이론은 어느 다른 미국의 해체이론가들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 한결 비판적이고 허무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한결 급진적이다. 해체이론을 극한점까지 밀고나간 그는 말하자면 해체적 성격이 가장 강한 이론가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로는 「눈땀과 통찰」(1971, 1983), 「독서의 알레고리」(1979), 「낭만주의의 수사학」(1984), 그리고 「이론에의 저항」(1986) 등이 있으며, 「심미적 이데올로기」와 「낭만주의와 모더니즘」 등의 저서가 현재 미네소타대학 출판부에 의해 출판이 계획되고 있다.

드만은 데리다의 이론을 일종의 무기로 삼아 그동안 미국 비평계에 지배적으로 풍미하던 신비평을 비판함으로써 그 특유의 해체이론을 전개한다. 그에 의하면 대부분의 비평가들은 어느 특정한 한 방법이나 이론을 사용하지만, 그 방법이나 이론은 그들이 문학 텍스트를 통해 창출해내는 결과와는 서로 상충되기 일췌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신비평가들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새뮤얼 콜리지가 말하는 이른바 '유기적 형식'의 개념에 그들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 유기적 형식

의 개념에 의하면 어느 한 시(여기서는 문학 일반을 가리킴)는 자연의 형태의 그것과 유사한 형식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신비평가들은 실제 비평행위에 있어서는 시 속에서 자연계의 통일성과 조화를 발견하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러니와 패러독스와 같은 애매모호하고 긴장을 지닌 언어장치를 비평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바꾸어 말해서, 그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통일성과 조화는 문학 텍스트 속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비평가들의 비평행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비평가들은 문학 텍스트를 대하는 순간 마르틴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른바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圓'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드만은 「눈땀과 통찰」에서 신비평에 대한 비판을 기초로 하여 "비평가는 오직 눈땀을 통해서만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패러독스적인 이론을 주장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모든 비평가들이 도달하게 되는 어느 한 통찰력은 '눈이 먼' 상태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눈이 먼 장님이 보통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물을 보다 균형있게 그리고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말이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수사적

「눈땀과 통찰」이 주로 신비평에 대한 비판이라고 한다면 「독서의 알레고리」는 드만의 '수사적 유형의 해체이론'이 가장 분명히 피력된 저서이다. 서구의 문화적 전통에서 볼 때 철학이 문학보다 우위를 차지해왔다. 언어학 측면에서 말한다면 축어적 언어와 비유적 언어 중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한결 더 중요시되어왔다. 바꾸어 말해서 문학은 철학에 의해 사실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허구로서, 즉 비유적인 언어에 의해 오염된 분야로서 간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드만은 철학(축어적 언어)에 못지않게 문학(비유적 언어)을 중시함으로써 '폭력적 계급조직'을 해체시킨다. 작가는 비유적 언어를 통해 그가 말하는 바와는 다른 어떤 것을 의도하고자 한다. 이런 비유적 언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隱喩와 換喩이다. 은유는 어느 한 기호 대신에 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수사적 방법인 반면, 환유는 어느 한 기호에서 다른 기호로 의미를 치환시키는

수사적 방법이다. 그런데 드만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은유이건 환유이건 언어의 수사성에 의해 침윤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언어의 수사성은 언어의 논리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을 행사함으로써 언어가 지니고 있는 지시적 혹은 축어적 기능의 가능성을 배제시켜 버린다. 그는 그의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프리드리히 니체, 마르셀 프루스트, 그리고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작품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특히 그는 언어는 본질적으로 수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지시적이거나 표현적이 아니라고 주장한 니체의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지시성은 항상 수사성에 의해 오염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드만은 이런 수사성 이론을 비평과 독서이론에 적용시킨다. 그에 의하면 모든 독서는 필연적으로 '誤讀'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학 텍스트와 비평 텍스트 사이에는 반드시 수사적 언어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평 텍스트는 문학 텍스트처럼 본질적으로 흔히 '알레고리'라고 불리는 문학적 수사에 부합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드만은 비평은 철학과 마찬가지로 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문학과 비평은 궁극적으로 진리되는 거리가 먼 일종의 '가면'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에 드만의 이론이 지니고 있는 혁명성과 허무주의가 존재하는 것이다.

◆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몇 권은 될 거라구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록은 역사 그것보다 보배롭습니다. 가슴 속에 묻힌 얘기, 세월에 날린 얘기를 담는 데 — 취재에서 기록까지 일 잘하는 바른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거들겠습니다.

글을 · 가 · 꺾 · 드 · 립 · 니 · 다

단행본 · 잡지 · 사보의 기획 · 취재 · 편집 · 제작 그리고 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에도 일 잘하는 바른손을 쓰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02) 716-0280

출판·편집대행

121-110 서울서마포구 신수동 445의 5 한국출판단지 내 121호 전화 (02) 716-0280